

# 도내 농수산물식품, 미국 시장 공략

### 도-전북바이오진흥원,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전북 농식품 홍보 판촉 행사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식품기업들의 수출길이 답답한 가운데, 우수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전라북도 농식품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4주간 진행되며, 전라북도 내 13개 기업, 53여개 품목으로 구성되고 수출액은 약 8만3,000불(한화 약 1억 원) 선적이 되었다.

기업별 품목은 누룽지, 서리태, 현미, 양배추브로콜리즙, 배즙, 생강즙, 장류, 박대, 한과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미국 오프라인 판촉행사는 미국 아마존 내 한국 식품 브랜드인 KF Village(한국식품마을)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KF Village는 미국 내 K-FOOD가 열풍을 끌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의 제품에서 탈피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북 지역의 다양한 우수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브랜드다. 미국 Seavon GreenLife가 전라북도 식품기업과 오픈을 준비중이다.

이번 미국 판촉행사는 오프라인 판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식품기업들의 수출길이 답답한 가운데, 우수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전라북도 농식품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촉행사, TKC 흡소핀 판촉,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11월 초에 미국 뉴욕의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열린 K-POP Contest와 연계하여 개최한 전북 식품 로드쇼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K-POP 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젊은 연령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파워블로거와 유튜브를 초대해 쇼셜네트

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북의 식품들을 홍보하고 시식하는 로드쇼가 성황리에 진행돼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오프라인 빌보드 광고도 활용하고 있다. 뉴욕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의 빌보드에 전라북도 제품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진행해, 아마존 KF Village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전라북도

의 제품들을 뉴욕, 뉴저지 거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유튜브 광고를 통하여 전라북도 제품과 KF Village관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뉴욕 내 한인 전문 TV 채널인 TKC 흡소핀 판촉도 진행 예정이다.

북미 시장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라북도 건강식품 중심의 홍보 판촉행사가 미국 오프라인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KF Village에 입점하는 전북도 식품기업 중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전라북도와 진흥원을 통해 좋은 기회를 잡게 되어 고맙다. 향후 온라인 판매도 활성화 되어 이번 기회가 미국 시장에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 중소 식품기업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전북 중소 식품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도록 이번 판촉 행사 이후에도 판촉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이 전북도, 농협호남농산물물류센터와 함께 오는 5일까지 제주도의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 한림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전북 농산물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도내 우수농산물, 감귤의 고장서 만나요

### 전북농협, 5일까지 제주시농협 등서 특별판매전

#### 사과·배·샤인머스켓·고구마·토마토 등 선택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농협호남농산물물류센터(센터장 김석일)와 함께 오는 5일까지 제주도의 제주시농협, 서귀포농협, 한림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전북 농산물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 확대와 전라북도 농산물 '에답제'의 브랜드와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판매전에서는 전주, 익산, 정읍, 진안, 무주 등에서 생산된

사과, 배, 샤인머스켓, 고구마, 토마토 등의 전북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타임세일, 매장 안내방송 등을 통해 하나로마트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전북 농산물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의 판매전을 통해 전북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홍보·마케팅 강화로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방역 점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2일 전주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시장내 주요 이동 공간 내 손소독제 비치,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 담당자 지정 등 방역 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날 전북중기청 윤종욱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인회에서도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방역 점검을 세심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포인세티아 생육 상황 조사 2일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연구원들이 육성 중인 포인세티아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의 시장 점유율은 2013년 15.1%에서 2020년 40.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APEC 농식품시스템 디지털 혁신 피하다

### 농식품부, 화상토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에이펙(APEC)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2일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이펙 산하에 설치된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 for Food Security) 포럼' 차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식량 손실 및 폐기, 청년 참여 등을 주제로 5개 회원국이 총 6번의 토론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이번에 주회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학계 전문가들이 농식품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해, 미국·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11개 에이펙 회원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발표와 토론

을 진행했다. 미국·캐나다·유럽에서 디지털 장비를 도입해서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비료 등 투입물을 감소시킨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인프라 및 정보 소외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국제기구·학계 전문가 발표에 이어, 우리나라·싱가포르·태국 등 3개 회원국이 각각 자국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싱가포르가 디지털화를 통한 식품 손실 및 폐기량 감축에 관한 사례 연구 등을 발표하고, 태국은 지역별·품목별 생산과 영양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적절한 작물 도입, 재해 감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로봇 등 디지털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청년 교육 및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조성 등을 소개하며 케이(K)-농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김윤상 기자



### 서부산림청, 내년도 임도사업 심의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산림도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리산둘레길 남원주천안내센터에서 2일부터 3일까지 2022년 임도사업 실시 설계 심의회를 열고 있다.

이날 심의회는 담당공무원을 포함해 심의위원, 설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대학교수, 산림기술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설계(안)에 대한 설계기준 적합성, 과다설계 여부 등에 대해 심의, 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실시설계 성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권장현 서부청장은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심의회를 통해 도출된 보완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설계 품질향상에 민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 우수 수출 농업기술·농식품 수출 우수사례 공유

### 농진청, 농식품 수출

#### 기술지원 성과 확산대회

#### 우수사례 8팀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해 개발한 우수 수출 농업기술과 농식품 수출 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1년 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를 개최했다.

수출 농업 경영체와 청년 수출 농업인을 비롯한 유관기관, 각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센터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개최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수출 농업 경영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가공식품 부문 4팀, 신선농산물 부문 2팀과 청년 수출 농업인 2팀 등 총 8팀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상품 개발, 시장 확대 등 수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수출상'을 신설해 청년 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영체의 역할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은 프리미엄 딸기수출단지 법인이 수상했다. 신선식품 분야 최우수상은 가이수출농업단지 법인 우수상은



2021 농식품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가 2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성과보고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서화파프리미엄딸기수출단지 법인과 그린화훼 영농조합법인 법인이 각각 수상했다. 가공식품 분야 최우수상은 농업회사법인 ㈜일약산그린푸드, 우수상은 평동전통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청년 수출상 부문 수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청창푸드와 지리산비아골 식품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올해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을 위해 노력한 유공 공무원으로 경기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이동연 지도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촌진흥청 청장상은 국립농업과학원 김유용 연구사 등 12명이

받았다. 대상 수상자인 프리미엄 딸기수출단지 법인 박영규 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수출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 한층 노력하는 수출 경영체로 발돋움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 농식품 수출 실적은 12.5% 이상 증가했다. 이는 수출 경영체 여러분과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수출 지원 기관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다"라며 "현장 중심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해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청, 어반 랜드 인스티튜트와 개발사업 유치 전략 논의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중모)은 2일 세계적인 도시개발협회 '어반 랜드 인스티튜트(Urban Land Institute, 이하 ULI)'와 함께 새만금의 개발 방향과 유망한 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ULI는 세계적으로 도시개발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국제 비영리단체로, 지난 9월 새만금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새만금개발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ULI 아시아태평양본부 데이비드 포커너(David Faulkner) 사장을 비롯해 미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활동하는 도시계획·부동산개발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에 조성되는 그린수소복합단지과 항만경제특구 개발 방향, 수변도시 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한 분양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 전문가들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할 때 발생하

는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조인했으며, 경제활동의 공간으로서 산업과 물류 기능이 결합된 항만복합단지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새만금에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특히, 그린수소복합단지는 신항만과 인접한 새만금의 중심부에 위치해 수소의 생산과 공급기지로 최적의 입지라고 평가하면서, 타 경쟁지역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부 규제와 함께, 새만금민의 특화된 투자혜택(인센티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관리는 한국 부동산 투자자의 우선순위에 핵심 고려사항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타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사업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분양·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